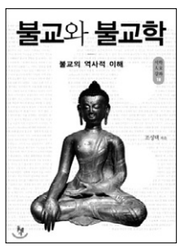
# 유럽적 해석 등장으로 근대불교학 탄생



**불교와 불교학**
조성택 지음
돌베개 펴냄
1만5천원

"근대 이전 우리에게 불교는 있었지만 불교학은 없었다. 불교학은 근대의 산물이다."

근대 이전에는 다양한 지역 전통의 '여러 불교'(buddhisms)를 조감해서 '하나의 역사'로 이해하지 않았다.

이 작업은 19세기 중반 이후 전통적 불교 문화권을 식민지로 경영하던 유럽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붓다를 역사적 '인간'으로 되돌려 놓고 사라진 '불교'를 고대 사회로 소급해 역사적 실체로서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종교학, 고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협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신화와 역사가 혼재한 불교가 비로소 '역사'로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불교 사상과 교리에 대한 '유럽적 해석'이 등장한 이른바 근대 불교학의 탄생이다.

불교에 대한 '유럽적 해석'은 '불교학'(Buddhist Studies)의 이름으로, 그리고 '근대 학문'의 한 상징으로 20세기 초 일본을 기점으로 동양에 역수입됐다. 오늘날 불교와 불교사에 대한 우리의 인문 교양적 지식 대부분은 유럽서 수입된 근대 불교학의 성과에 기초하고 있다. 불교는 우리의 '오랜 전통'이지만, 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유럽에 의한 근대 산물인 셈이다.

이런 근대 불교학을 통해 고대 불교사를 재구성하고 다양한 불교 전통 형성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상당한 수준까지 조감하는 시야가 확보됐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대 불교학은 태생적으로 식민주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었다. 유럽인들에게 불교는 동양의 타자(他者)며, 현재가 아닌 과거다.

또한 근대 유럽이 재구성한 초기 불교사는 철저한 문헌 비평과 문헌 실증주의에 기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유럽적 상상력과 암묵적 전제들에 바탕을 둔

**20세기초 일본 기점 역수입**
**조선, 1924년 백성욱 박사가 소개**
**근대불교 친일 편향 시각 지적**

것이었다.

저자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균열을 드러내 보임으로서 새 '상상'의 가능을 열어놓는다. 근대 불교학이 초기 불교사 출발점이자 결론으로 상정하는 것은 불교가 단일 교단서 출발해 여러 교단으로 분열됐으며, 경전 역시 단일 텍스트로부터 다양한 텍스트로 분화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시 기독교와 그 후 전개과정에 대한 당시 유럽인들의 역사적 이해를 그대로 불교사에 투사한 것이다. 또한 베다 문헌을 구전 전승한 브라만교 전통이 초기 불교에서도 그대로 재현됐을 거란 가정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불교의 경우 붓다 자신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다양한 지방어를 통해 전달할 것을 당부함으로써 특정한 경전 언어의 배타적 사용을 거부했다.

근대 불교학은 유럽서 시작됐지만 그 여파는 전 불교권에 미쳤다. 일본은 1876년 난죠 분유(南條文雄)와 가사하라 겐주(笠原研壽)가 옥스퍼드대학에 유학해 산스크리트어를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은 산스크리트어 불전 연구를 위해 서구에 지속적으로 유학생을 파견했다. 조선의 경우에도 1924년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에서 불교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백성욱이 유럽의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 경전 연구 동향을 소개했다. 이어 프랑스에 유학했던 김법린은 1932년 산스크리트어 원전 연구를 바탕으로 원전 번역을 연재했으며 프랑스의 불교학 동향을 소개했다.

저자인 고려대 조성택 교수 강연 모습.

이들 동양의 불교 지식인들은 근대 불교학의 성과에 일방적으로 압도되었으며, 근대 불교학을 통해 비로소 불교를 '근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불교는 당시 기독교와 대척점으로 여겨지던 과학, 이성, 철학 등과 아무런 모순 없이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불교는 '전통'이지만 가장 근대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한, 중, 일 삼국은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근대 불교'를 기획하였으며, 이는 동아시아 근대 불교를 형성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1895년 비로소 '합법적인' 활동 공간을 얻은 조선 불교인들은 새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적 유용성을 증명하기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했다. 승려 근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교과 과정에 철학, 종교학, 역사학 등 근대 학문을 포함시켰다. 당시 활발한 선교활동을 시작한 기독교와 일본 불교의 포교 활동에 자극 받아 병원 설립, 교도소 포교 같은 근대 복지 사업을 시행 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스스로의 전통을 부정하는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만해 스님의 염불당 폐지나 대처식육(帶妻食肉) 같은 주장은 그 대표적 예다. 만해 스님의 이런 주장을 지나치게 조선 불교의 왜색 불교화라는 관점서 바라보는 것은 그가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저자는 근대 불교를 항일-친일의 도식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편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근대 불교사 전체를 '항일 민족의식'과 '전통 수호를 통한 한국 불교의 정체성 확립' 과정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 관점은 현재 한국 불교 최대의 종단인 조계종의 성립을 한국 근대 불교의 완성으로 보고자 하는 일종의 '목적론'적 역사 기술이다. 저자는 한국 근대 불교사의 전체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딜레마'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천상천하로 부처행하며 살자"

## 백장록 강설

**원오스님 역해 | 비움과 소통 펴냄 | 2만원**

백장(百丈)스님의 휘(諱)는 회해(悔海: 749~814)이며 중국 복주 장락 출신이다.

선종 수행가풍을 실질적으로 확립한 백장 스님 어록은 일찍부터 독립된 본이 있었다. 〈조당집(祖堂集)〉에 의하면, "문도 신행과 범운이 법어를 결집해 어본(語本)을 편집했는데, 오늘날 어본이 후학들에게 유행되고 있다"고 한 탑명(塔銘) 내용에서 문도들이 모은 어록이 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백장 스님의 일상생활을 나타내는 한마디는 지금도 유명한 어록이 됐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

〈고존숙어록(古尊宿語錄)〉에는 어록(語錄)과 광록(廣錄)을 구분하여 싣고 있는데, 광록은 다른 어록과는 달리 긴 자설(自說)의 법문형식으로서 교학적인 배경이 두텁다. 법문은 양변(兩邊)을 떠난 중도(中道)에 입각해 있고, 그 중에서도 대승입도 돈오법은 스님의 대승법문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스님의 제자로서 〈전등록(傳燈錄)〉에서 말하듯이 위산과 황벽 두 스님이 중요하다.

위산스님은 그 제자인 앙산 스님과 함께 위앙종의 종조가 되고, 황벽 스님은 임제(臨濟)스님을 배출하여 임제종의 원류가 된다. 즉 5가 종파에서 최초의 두 파가 백장스님 아래에서 나온 것이다.

백장스님 이후, 선원(禪院)은 생활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율원(律院)등에 속해 있던 선원이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게 됐고, 상당(上堂)하여 공개 설법하는 설법당(說法堂)이 마련됐다.

또한 대중 운력이나 10가지 소임 등 선원 생활을 규율하는 청규가 백장 스님에서부터 발달하게 됐다. 이렇게 엄격한 규율과 대중 운력을 통한 경제적 자립은 폐불 속에서도 선문(禪門)이 살아남을 수 있던 점으로 평가된다

이 책은 백장 선사의 대중 법문과 선문답을 최초로 해설한 책이다. 그동안 혜능선사, 마조선사, 임제선사, 조주선사 등의 선어록은 국내외서 해설본이 출간된 적이 있지만 백장선사 어록 강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해자인 원오 스님은 자신의 수행체험을 바탕으로 번뜩이는 지혜와 유머가 가득한 선문답을 원문의 깊은 뜻과 멋을 살려 흥미롭게 도움말(보설)을 주고 있다.

아울러 이 책은 간화선 뿌리인 조사선의 마음공부를 드러낸 점도 특징이다. 조사스님이나 선사가 '마음이 곧 부처'인 도리를 설법이나 문답, 행위, 고함치기(할) 등으로 수행자에게 제시했을 때 이를 단박에 깨닫는 것을 '언하대오(言下大悟)'라 한다. 사람의 본심을 곧바로 일러주는 직지인심(直指人心)의 가르침을 받고 곧바로 깨달으면 조사선으로 깨달은 것이요, 그 법문서 알아차리지 못해 화두로 삼아 참구하는 것은 간화선 공부라고 한다.

알다시피, 조사선의 시작은 육조 혜능(639-713) 선사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선을 확립해 구체화시킨 사람은 혜능의 손제자인 마조도일(709-788) 선사이다. 조사선은 마조도일에 의하여 대성되었는데 그후 그의 제자 백장, 황벽, 임제 선사 등에 의해 크게 발전했다.

**백장선사 법어와 선문답 해설**
**'一日不作 一日不食' 청규 확립**
**'선교회통(禪敎會通)'의 선어록**

마조 스님 제자 백장 스님이 백장산에 백장사를 지어 율원에 속하던, 선원(禪院)을 독립해 총림(叢林)이 되었으며, 〈백장청규(百丈淸規)〉를 지어 독립된 총림을 세워, 조사선을 확립, 자립자족 수행공동체로서의 면모를 만들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수행하는 평상선과 여래선을 주축으로 수행체제를 확립해 주경야독을 이뤄 이때부터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이란 말이 알려졌다. 세속이나 출세간이 하나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수행이요, 수도이며, 평상행이 바로 불타행이며 부처행이며, 사람이 바로 부처라고 가르쳤다.

이를 바탕으로 백장 스님은 선의 지침인 불립문자(不立文字) 언어도단(言語道斷) 심행처멸(心行處滅)의 근본대의(根本大義)를 허물지 않으며, 교법(敎法)을 통해 선(禪)을 구현한 선어록(禪語錄)을 남겼다. 그 오묘한 진리가 바로 이 책에 상세히 해설돼 있다.

김주일 기자

# 마음이 지닌 치유의 가이드라인 제시

## 자기치유

**조순희 지음 | 정우서적 펴냄 | 1만원**

우리들은 흔히 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을 혼용해 사용한다. 사전에서조차도 그렇다. 하지만 한자의 뜻에서만 그나마 '치료'란 병 고칠 '료(療)'로 설명하고 '치유'란 병 스스로 나을 '유(癒)'라는 설명으로 되어 있다.

병의 완치는 사실 환자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95%이고, 나머지 5%만이 의사나 주변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다. 식생활, 운동, 마음가짐 등이 바로 그 것들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 자신의 마음과 의지이다. 오늘날 발생하는 질병의 80% 이상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병 사망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암과 심혈관계질환의 가장 큰 원인도 바로 스트레스에 따른 교감신경의 긴장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트레스 경고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예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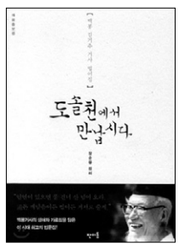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바깥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으면 몸 안의 지혜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 준다. 이 책은 바로 그 지혜를 어떻게 실생활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특히 마지막 장에 소개된 '마음이 지닌 치유의 힘'을 보면 불교의 명상이 얼마나 자기 치유에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마음 한 번 바꾸자' '자주 웃자' '용서하자' 등이 자기 치유 할 수 있는 비결들이다.

김주일 기자

# 백봉거사 법문집 개정증보판 펴내

##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순용 정리 | 판미동 펴냄 | 1만5천원**




출가하지 않은 재야 불교인으로서 선지식 반열에 올라 한국 불교계에 거사풍(居士風) 불교 지도자로 명성을 떨친 백봉 김기추 거사. 그의 대표적인 법어집 〈도솔천에서 만납시다〉가 판미동에서 새롭게 출간되었다. 이 책은 1996년 출간된 초판에 일부 원고를 추가해 개정증보판으로 펴낸 것이다.

백봉 거사는 〈금강경강송〉 〈유마경대강론〉 〈절대성과 상대성〉 〈선문염송요론〉 등 여러 저서를 남겼다. 약 300여 개의 그의 설법 녹음 테이프는 여전히 그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그의 생생한 설법을 전해 주고 있다. 〈도솔천에서 만납시다〉는 그 테이프에서 추출한 백봉 거사의 거침없는 화법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특히 실린 글은 20여 년간 이루어진 백봉 거사 법문 중 일부를 가려 뽑은 것이다. 법문의 특징은 백봉 거사가 종지(宗旨)를 세운 소위 거사풍(居士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먼저 설법을 통하여 일체만법인 상대성이 본래 우뚝스리 홀로 존귀한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무상(無相)의 법신(法身)이 유상(有相)의 색신(色身)을 굴린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나서 화두를 지니게 하는 것'이 거사풍의 요체다. 따라서 백봉 거사가 쓰는 방편도 대체로 학인들이 올바른 견처(見處)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점을 유의해 열린 가슴으로 간절히 귀 기울인다면 백봉 거사가 전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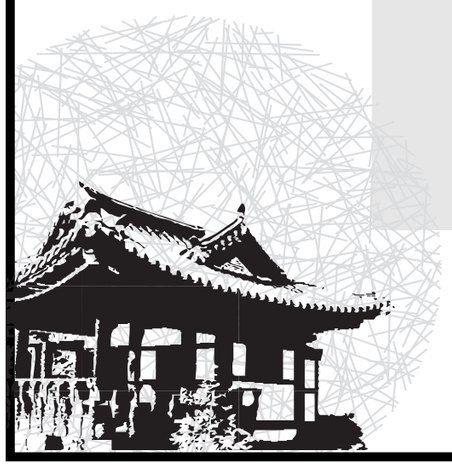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사)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종 도 모 집

석가세존의 진리를 수지하고 相扶(상부), 相助(상조), 相生(상생)의 정신으로
불법을 탁마하여 自我成就(자아성취)를 추구하고자 발심하신 선지선각자님 환영합니다.

일월조계종 입종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증명사진 3매
■ 승려증 발급하실 분 타 종단 수계증 사본
■ 사암 등록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 입종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입종비 : 총무원 방문하시면 입종비 없습니다.
■ 출가 하실 분, 장기간 기도하실 분 환영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 원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산 146. 사자암 011-677-8525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